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예고보도(2022.3.10.)

3/14(월),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 걱정)은 3월 1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드디어 5년간 국정 운영을 책임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초박빙의 선거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의 임기 동안 새 대통령이 가야할 길은 매우 엄중합니다. 세계 11위의 경제국이지만 ‘슈퍼불평등 국가’,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은 물론이고 유래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째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임기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당선인에게 촉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역대 선거들이 정책보다 네거티브로 치닫는 면이 강했지만 20대 대선은 ‘정책 실종, 비호감 선거’라는 표현이 나돌 정도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영역으로 평가되는 교육 영역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각 당의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집에도 당면한 교육 과제를 해결할 묘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경쟁교육에 ‘우울·자해·자살’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 하는데 대선 후보들은 처방을 내놓지 않거나 미흡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지난 2월 17일(목)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 ‘20대 대선 교육공약 국민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의 결과가 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평가단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쟁교육 고통 치료할 즉시 처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평가단은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기에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언 대통령 당선인에게 인수위원회 과정과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

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는 기자회견은 단순한 촉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집을 토대로 임기 중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전망은 물론이고 필수과제 및 보완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은 저마다의 자질과 성품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국민이며, 대통령으로서 질주하는 경쟁교육을 막지 못한다면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일이라는 사실을 외치고 각인시키려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장 참여와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오니 뜻있는 시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 시 : 3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청와대 분수 앞 광장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및 유튜브 생방송 시청 링크

☞ 주요내용

- 당선인 교육공약에 따른 교육 전망
- 당선인에게 촉구하는 경쟁교육 고통 해소 방안
- 시민 발언 및 퍼포먼스

☞ 현장 참석 신청 | bit.ly/3pLFBBq

☞ 유튜브 생중계 참여 | <https://youtu.be/rdmwopORW0o>

2022. 3. 1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